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경험

1) 음악경험의 중요성

음악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의학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여 마음이 아픈 환자와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를 돕는다.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를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수학에 필요한 목표의식, 열정, 집중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음악감상을 통한 청각 훈련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¹ 춤을 추기 위해 음악이 필요하고, 전철 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저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음악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음악에 대하여 실제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속속 밝히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 뇌연구센터와 헬싱키대학 심리학부인지뇌연구소 테포 사르카모(Teppo Sarkamo) 교수팀²은 뇌졸중 환자에게 음악을 들려주어 회복을 높이는 연구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음악을 들려준 환자가 아무것도 듣지 않은 환자나 오디오 북을 들은 환자에 비해 언어적 기억이나 집중력이 개선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악그룹은 언어기억이 평균 60% 개선돼 오디오북 그룹의 17%, 대조군의 29%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

¹ 김강일, 김명옥(2005), 「예능에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서울: 예담프렌드.

² “음악요법, 뇌졸중 인지·기억능력 개선”, 「조선일보」, 2008. 5. 5,

<<http://health.chosun.com>>

로 나타났으며 집중력 또한 평균 17%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고대 안암병원 이주영 교수는 뇌를 MRI로 보면 음악이 뇌의 전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확인되는데, 뇌의 손상된 부분 이외의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언어와 연관된 중추들이 계속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작용한 음악의 효과는 음악의 규칙적인 리듬이 청각과 운동신경을 자극해 뇌졸중으로 마비가 온 환자의 감각과 운동회복을 돕고, 멜로디는 왼쪽 뇌가 손상된 언어장애환자의 오른쪽 뇌를 자극해 환자의 언어능력을 이끌어 내며, 단일한 구조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 환자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강일, 김명옥³의 「예능에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에서는 음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음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육학과의 연구에서는 음악과 같은 예능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줄 뿐 아니라 지능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92년부터 98년까지 베를린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음악교육을 더 많이 받은 그룹에서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되며, 특히 지능이 비교적 낮은 아이들의 지능 향상효과가 뚜렷함을 밝혔다. 이러한 지능발달 이유에 대하여 이 대학의 바스티안 교수는 음악교육이 구조이해, 시공관념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발전시켜 주며, 특히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조밀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악보훈련은 직접 지능 발달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 음악연주는 지속적인 주의력과 계획성을 요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측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다른 종류의 교육으로도 달성될 수 없는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인 미국 위스콘신 대학 라우처 교수의 ‘모짜르트 음악을 들은 사람이 수학적, 공간적 추론능력이 뛰어나다’는

³ 김강일, 김명옥, 전계서, 43~45쪽에서 재인용.

연구에서는 피아노를 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나 음정과 리듬을 듣는 것과 같은 섬세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음악교육이 두뇌발달을 돕는다고 보았다.

밴더빌트대학의 연구⁴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음악인들은 발산적 사고력(divergent thinking)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일반인보다 좌우측 양쪽 전두엽 모두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양측 뇌 반구를 통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취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IQ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강도 높은 음악훈련이 IQ를 높인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연구팀⁵은 매주 피아노나 노래 수업을 정기적으로 일 정기간 받은 아이의 IQ가 수업을 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의 글렌 셀런버그 박사는 어린이에 대한 음악 수업이 두뇌 가운데 수학과 공간 지각력, 그리고 다른 지적 능력에 유용한 부분을 발달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음악수업에는 기억, 감정표현, 음정, 화음 학습 같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다방면의 체험이 IQ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승윤희⁶의 논문에서는 음악경험은 뇌세포 수상돌기의 확장으로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대뇌의 양 반구를 고르게 발달시키며, 사고력·통찰력·지각력이 발달되고, 언어 기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많은 신경과학 연구들은 음악경험이 일반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⁴ “음악하는 사람 양쪽 뇌 사용 ↑… IQ 높다”, 「메디컬투데이」, 2008. 10. 6.

<<http://health.mdtoday.co.kr>>

⁵ “음악수업 받은 아이 IQ 높아진다”, 「연합뉴스」, 2004. 7. 14.

<<http://www.yonhapnews.co.kr>>

⁶ 승윤희(2000),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교육의 역할”, 음악교육연구 제19집, 15~16쪽.

전윤경⁷의 논문에서는 음악이 인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개스틴(Gaston, 1968)은 음악의 비언어적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언어로 인간의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음악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잠재력과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타인과 접촉하기 어려운 사람도 음악활동을 통해 타인과 가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적응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메리암(Merriam, 1964)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감정표현, 상징적 표현, 미적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신체적 반응, 사회적 규범,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 등을 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두려워하며 경쟁심이 없는 사람들을 음악활동에 참여시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상황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음악경험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학교교육에서의 음악경험⁸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위해서는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심성이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올바른 음악체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행위는 표현과 감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표현은 가창, 기악연주,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창 및 기악 연주를 통한 표현은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지휘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자기를 구현하며, 작곡자의 작품에 대한 의도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창작을 통한 표현은 음악적 구성요소를 자신의 음

⁷ 전윤경(2002), “음악적 경험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31~32쪽에서 재인용.

⁸ 이홍수, 전게서.

악적 의도에 따라 조직하는 것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바탕이 된다. 음악감상은 타인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타인의 연주를 통해 들음으로써 음악의 구성요소를 분별하고, 상호관계를 파악하며, 조직원리를 지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음악적 심상을 구축하여 작품의 의미를 수용하는 일이며, 이러한 감상은 분석, 의미의 인식, 평가를 통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경험을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위해 어떤 음악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악적 경험을 활동, 이해, 생활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된다.⁹

가창학습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 모든 학생들이 명쾌하게 자신의 목소리와 정확한 음정·박자로 음악을 표현하고, 악곡의 의미를 느끼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하며, 독창, 중창, 합창과 같은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고 아름답게 다져진 음성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악학습은 악기로 음악을 표현하는 것으로 악곡의 체험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고, 악기 연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러 가지 악기로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창작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하고, 학습한 음악의 구성요소의 개념과 생성 원리를 적용하여 음악적 개념을 확대하고, 창작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음악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⁹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별책1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감상학습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상이며, 음악적 성숙에 도움이 될 정도로 감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구성요소의 감지 및 식별, 형식적 구조의 분석 파악, 양식 및 형태 파악, 악곡 진전의 예상, 음악적 심상의 구축, 표현의 질 판단, 함축적 의미 발견, 감동 등과 같은 인지적, 감성적 경험이어야 한다.

음악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음악적 심성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학생 개개인의 음악 경험의 양상과 질에 따라 결정된다. 쉬운 악곡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악곡까지, 초보적 음악 경험에서 높은 수준의 경험에 이르기 까지 학생의 수준에 맞고, 예술적이며, 음악적 논리가 명확한 악곡을 선택하고, 이러한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음악적 개념과 심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이 음악활동에 주체가 되고, 학생 자신의 느낌과 사고에 따른 의도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의미 있는 음악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음악성

1) 음악성의 정의¹⁰

음악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음악성, 음악적 능력, 음악적 재능과 같은 많은 용어들이 쓰이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가 구별되어 쓰이거나 때로는 같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최초로 음악성의 측정을 위한 테스트 표준을 발달시킨 미국의 음악 심리

¹⁰ 김서경(1990), “음악학습에 있어 음악성의 의미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201~202쪽에서 재인용.

학자 시쇼오(C. E. Seashore)는 ‘음악재능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Musical Talent, 1919)’에서 음악적 능력은 여러 가지 연관되지 않는 재능으로 구성되며 요소들 간에 독자적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타고난 보편적 재능을 음악적 자질(capacity),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재능을 음악적 능력(abil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손(M. Schoen)은 음악적 적성(Musical aptitude)에는 감수와 표현 두 면이 있으며 전자를 음악성, 후자를 음악적 재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음악성과 음악적 재능의 구별은 음악적 기술의 문제로 보아 음악적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음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레베즈(G. Revez)는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Music’에서 음악성의 기본적 요소는 음악의 창조적인 재능과 이해하고 해석하는 재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음악적 재능과 음악적 적성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음악적 재능은 특수한 활동 영역에 있어서 보통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의미로 해석하고, 음악적 적성은 생득적 능력으로 어떤 행동양식이나 특성 등의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응력이라고 설명하였다.

머셀(J. L. Mursell)은 ‘음악교육 심리학(The Psychology of School Music Teaching)’에서 음악적 재능과 음악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었다. 음악성은 리듬에 반응하는 능력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적 반응 또는 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고, 성장의 원리에 의해 음악교육을 체계화하려 하였다.

2) 음악성의 특징¹¹

고든은 음악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음악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타고난 음악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악성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특히 어린 시기의 음악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고든은 9세까지는 환경과 교육의 영향에 의해 음악적성이 변하며, 9세 이후에는 고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견해는 조기 음악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지 9세 이후의 음악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성과 지능지수는 상관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3) 음악성 검사¹²

음악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19세기 초 미샤엘리스(Michaelis)의 “음악적 능력의 측정에 대하여”에서 발견되며, 실험을 통한 실증적 자료와 함께 한 음악성 검사는 슈툼프(Carl Stumpf)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음악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려고 한 그는 함께 울리는 음의 수를 알아보거나 선율을 따라 부르는 능력을 검사했다.¹³

체계적인 표준화된 최초의 음악성 검사는 1919년 시쇼어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음악성 측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

¹¹ 현경실, 전게서. 23~25쪽에서 재인용.

¹² 현경실(1994), “음악소질 형성과정과 한국음악 소질검사 제작을 위한 방안 연구”, 국악교육, 41~49쪽.

¹³ 주대창(2000), “음악성의 교육적 의미”, 음악과민족 19호.

기 시작하였다. 1919년 시쇼어의 음악재능 검사(The Seashore Measure of Music Talent), 1948년 윙(Wing)의 음악지능 검사(The Standard Tests of Musical Intelligent), 1966년 벤틀리(Bentley)의 음악능력 검사(The Measure of Musical Abilities), 그리고 고든의 1965년 음악적성 프로파일(The Musical Aptitude Profile: MAP)과 1979년 초급 오디에이션 능력 검사(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PMMA), 1982년 중급 오디에이션 능력 검사(The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IMMA), 1989년 고급 오디에이션 능력 검사(The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AMMA)등이 있다.¹⁴

시쇼어는 음악교육의 영향을 받기 전의 기초적 음악능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청각 식별력에 가치를 두었다. 하위 검사는 음고, 길이, 강약, 음색의 구별과 음정 기억, 리듬 기억의 6개로 구성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표준화된 음악성 검사라는 점과 청각 식별력으로 음악성 측정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윙은 음악적 능력과 지능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지능 지수가 음악적 성공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이 검사는 비선호도 검사와 선호도 검사로 나뉜다. 기초적인 기능인 화음분석, 음고의 변화, 음기억 등 음감과 관계된 비선호도 검사와 함께 음악적성을 기계적인 음지각 능력이 아닌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고 리듬 액센트, 화성, 음의 셈여림, 악절 등의 음악적 선호와 관계한 선호도 검사를 포함하였다. 시쇼어의 검사와 비교하여 하위검사가 기계적 음이 아닌 피아노가 사용된 점과 하위 검사에서 음고의 구별이나 보존 등이 선율, 화성을 리듬에 실어서 제시하여 보다 음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음악적성을 기계적인 음지각 능력이

¹⁴ 배성애(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아 선호도 검사를 포함한 점도 중요한 공헌으로 본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음악성취도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다.

크왈바쎄와 다이크마(Kwalwasser와 Dykema)는 보다 청감각적 요인들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 ‘Kwalwasser-Dykema Music Test’를 발표하였다. 시쇼어와 마찬가지로 음고, 길이, 강약, 음색의 구별과 음정 기억, 리듬 기억을 포함하며, 이외에 음정의 이동, 선율의 취향, 음고연상, 리듬연상의 네 가지 부분을 더하였다. 드레이크(Drake)는 1933년 최초로 음악적 재료들을 사용한 테스트를 고안하였으며, 주로 음악적인 기억에 초점을 맞추었다. 테스트는 음정의 구별, 보존, 직관으로 이루어지며, 매우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약 40년 가까이 이용되었다.¹⁵

벤틀리의 검사는 음정 구별, 화음 분별, 음고 보존, 리듬 보존 등 4개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시쇼어의 검사와 같이 음 발진기를 사용하여 음고를 구별하는 검사와 원의 선호도 검사가 혼용되어 이루어졌다.

고든의 MAP는 비선호 검사와 선호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의 특징은 고든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음악인에 의해 연주되고 녹음 되었다. 비선호도 검사는 음감과 리듬감의 하위 검사가 있으며, 음감은 선율과 화성 검사, 리듬감은 템포와 박자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악구의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는 검사이다. 선호도 검사는 음악적 감수성의 하위 검사가 있고, 이는 다시 악절, 균형, 양식 선호로 구성되며, 어느 것이 더 음악적으로 느껴지는지 답변하는 검사이다.

고든의 단계별 음악적성 검사인 오디에이션 능력 검사는 5~8세의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검사인 PMMA와 9~11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¹⁵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1996), “한국 초등 학생의 음악 적성에 관한 연구”: 고든의 중급 음악적성검사(IMMA)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연구 제15집, 5쪽에서 재인용.

하는 중급검사인 IMMA, 음악 전공자를 위한 AMMA가 있다. PMMA와 IMMA는 리듬감과 음감 2개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40문항이다. AMMA는 음감과 리듬감을 구분하지 않고 한 쌍의 멜로디를 듣고 두 멜로디가 같은지 다른지 답하고, 다르다면 음과 리듬 중 어느 부분이 다른지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벤틀리의 검사는 7세부터 사용할 수 있고, 고든의 PMMA는 유치원부터 3학년을 위한 검사이다. 고든의 IMMA는 1학년부터 4학년을 위한 검사이며, 시쇼어, 윙, 고든의 MAP 검사는 4학년부터 성인을 위한 검사이다.

3. 선행연구 고찰

이인선¹⁶은 “피아노 조기교육이 음악적성, 학업성적에 미치는 상관성 연구”를 통하여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영향력에 대하여 고찰하고, 음악교육의 당위성과 음악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 지역 세 곳의 초등학교 4학년 164명을 대상으로 하여, 피아노 조기교육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음악적성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피아노 조기교육과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 피아노 조기교육과 학업성적(국어, 수학,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피아노 조기교육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 연구자가 개발한 피아노 성취도 검사,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학업성적(국어, 수학, 음악) 점수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¹⁶ 이인선(2006), “피아노 조기교육이 음악적성, 학업성적에 미치는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첫째, 학업성적 중 수학, 음악은 음악적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r=.235, .378 p<.05)

둘째, 피아노 조기교육은 음악적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r=.277 p<.05)

셋째, 피아노 조기교육과 학업성적은 국어, 수학, 음악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다. (r=.317, .222, .467 p<.05)

넷째, 피아노 조기교육의 수준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피아노 성취도 검사는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왔으나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리듬 영역의 평가 기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 연구는 여러 음악교육학자들의 주장처럼 음악 조기교육을 통해 음악적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피아노 조기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미약하나마 타 교과와의 상관성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선행된 연구물을 참고할 수 있었다.

신주현¹⁷은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서울 소재 4개 어린이집의 만 4, 5, 6세 유아 227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음악환경과 유아의 예술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과의 관계를 밝히고, 유아의 음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1)가정의 음악환경(물리적, 심리적)에 따라 음악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유아의 예술교육 경험에 따라 음악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이며, 연구도구는 음악환경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설문지,

¹⁷ 신주현(2003),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의 음악능력 측정을 위한 고든의 PMMA, 차이 검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물리적 음악환경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음악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1.75$ $p<.001$)

둘째, 가정의 심리적 음악환경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음악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3.02$ $p<.001$)

셋째, 유아의 조기 예술교육 경험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음악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1.75$ $p<.001$)

넷째, 유아의 예술교육 경험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경험이 많고 교육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음악적성을 나타냈다.

이 논문은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따라 유아의 음악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조금은 상식적이고 평이한 논문이었다. 그러나 예술교육 경험을 음악에 한정하지 않고 미술, 무용, 문학 등의 예술교육도 포함한 점과 이러한 예술교육의 기간과 다양성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주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하였으나 단순히 결과에 따라 유아에게 음악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마무리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논문을 통하여 가정의 음악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었으며, 유아의 음악능력 향상을 위한 가정의 관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배성애¹⁸는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에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384명(남학생 210명, 여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음악적성, 음악흥미, 지능이 음악성취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¹⁸ 배성애, 전게서.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음악적성과 음악흥미가 음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지능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다섯째, 음악적성과 음악흥미 및 음악성취도의 남녀간 차이는 있는가? 이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음악적성 측정을 위한 고든의 AMMA, 음악흥미 측정을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자기평가보고식 설문지, 지능측정을 위하여 박도순의 최신종합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음악 수업과 음악 활동에 관한 태도, 흥미, 가치관을 5단계 평정척도 형으로 실시하였고, 음악성취도는 가창과 청음으로 평가하였다. 가창성취도는 슈베르트(Schubert)의 <음악에(An die Musik)>를 우리말로 노래하여 평가하였으며 교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생들의 노래를 녹음하여 두 명의 교사가 재평가하였다. 청음성취도 검사는 코다이(Zoltan Kodaly)의 음악교수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고 음악적으로 작곡된 동기를 듣고 같은 동기를 악보에서 구별하도록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195$ $p<.01$)

둘째,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음악적성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461$ $p<.01$)

셋째, 음악성취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음악흥미이다. ($p<.01$ $t=9.66$)

넷째, 음악성취도와 지능과의 상관관계는 유의 있는 상관을 나타내지 못했다. ($r=.029$ $p>.05$)

다섯째, 음악성취도 검사 점수의 남녀간 평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5$ $t = 7.746$)

이 논문은 세가지 변인인 음악적성, 음악흥미, 지능이 음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려준 매우 흥미 있는 논문이었고, 연구결과를 통하여 음악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보숙¹⁹은 “음악 사교육 경험과 초등학생의 음악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에서 인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242명을 대상으로 음악 사교육 경험과 음악 성취도, 흥미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사교육 경험의 유·무와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 둘째, 음악 사교육 경험 기간과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 셋째, 음악 사교육 시작 나이와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악 사교육을 학교 교육을 제외한 학원교육이나 개인 레슨 등을 통한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성취도 검사와 오스굿(Osgood)의 의미검사를 사용하였으며, SPSS 11.0을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음악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음악 성취도는 높은 반면 흥미도는 떨어진다.

둘째, 음악 사교육 기간이 긴 아동이 음악 사교육 기간이 짧은 아동에 비하여 음악적 성취도는 높지만 흥미도는 떨어진다.

셋째, 음악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 흥미도가 떨어진다.

즉, 음악 사교육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

¹⁹ 이보숙(2005), “음악 사교육 경험과 초등학생의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은 아동에 비하여 성취도는 높지만, 반대로 흥미도에서는 음악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사교육 기간이 짧은 아동, 초등학교 입학 후에 사교육을 시작한 아동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음악 사교육이 기능적인 면이나 이해의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동의 음악적 흥미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논문은 음악 사교육을 통하여 음악적 성취가 가능하며, 음악적 성취와 음악에 대한 흥미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음악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과 음악 사교육 경험 기간이 짧은 아동이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았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의견과 같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기능습득 형태의 음악 사교육은 아동에게 흥미를 주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A고등학교의 1학년 인문계 남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초반 설문지 조사와 음악성 검사를 마친 284명 중 설문지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한 학생 6명과 설문지 조사 및 음악성 검사 이후 전학 등의 이유로 학업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 3명, 총 9명의 자료를 제외한 275명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연구대상의 음악경험의 종류와 기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 연구대상의 학교로부터 회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사용되었다.

1) 음악성 검사

연구대상자의 음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고, 학생들의 음악적으로 우수한 부분과 열등한 부분을 진단하며,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음악적성도 진단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검사의 특징은 듣기 검사이며, 개인은 물론 그룹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검사이고,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실시하여 음악적성을 짚 수 있으며, 실제 음악을 사용하여 만든 검사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채점도 쉽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며, IQ나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고,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음악적성도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악보를 읽는 능력이나 쓰는 능력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 등 다른 음악적 능력이 필요 없다.

이 검사는 리듬과 가락 2개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30문항씩 총 60문항이다. 리듬검사는 한국의 장단의 개념을 포함시켜 액센트도 포함되어 있으며, 박자감을 돕기 위하여 각 문항의 처음에 예비박이 주어진다. 문항마다 두 개의 리듬 패턴을 들려주고 ‘같음, 다름’을 답하는 검사이다. 박자의 구성은 3/4, 4/4, 6/8, 12/8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비율은 2:1로 서양 음악 20문항, 한국 음악 10문항이다. 가락 검사는 리듬의 요소가 배제된 같은 길이의 5개 음이 사용되었다. 한 쌍의 가락 패턴을 듣고 ‘같음, 다름’을 답하는 검사이다. 서양 음악 22문항, 한국 음악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양 음악은 장조와 단조의 음계를 사용하였고, 한국음악은 오음음계를 사용하였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22분이며, 검사 준비 및 마무리, 안내 등의 시간을 감안하여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2) 설문지

연구대상자의 음악경험의 종류와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설

문지를 연구대상 8개 학급에 연구자가 입회하여 30분 동안 작성토록 하였다. 모두 20문항이며 음악 사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 5문항, 특별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 6문항,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질문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Ⅲ-1> 설문지 문항 구성

구 분	문 항 구 성
음악 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의 종류 · 경험을 시작한 시기 · 경험한 기간 ·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 · 계속 경험하고 싶은지 여부
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의 종류 ·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 · 경험을 시작한 시기 · 경험한 기간 ·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 · 계속 경험하고 싶은지 여부
가정의 음악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음악경험자가 있는지 여부 · 가정에서 가족의 음악활동 여부 · 학생의 음악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 · 음반, 음악관련 도서, 악기의 보유 수준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문항은 전체 학생이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음악 사교육 경험과 특별활동 경험에 대한 문항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학생만 답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 사교육 경험만 있는 학생은 음악 사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 5문항과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질문 9문항을 답변하여야 하며, 두 가지 모두 경험한 학생은 전체 20문항을 답변하여야 한다. 경험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경험의 종류를 각각 적고 각 경험마다 후속 문항을 모두 답하는 중복답변식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설문지의 의도와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 정의 등을 포함한 안내지 1매, 중복답변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한 예시문 1매, 학생들이 직접 기록할 설문지 1매, 총 3매이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를 부록에 실었다.

3) 학업성적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적은 1학년 1학기 과목별 평균성적을 사용하였다. 이는 1학년 1학기 중 실시된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실기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성적이다. 과목은 국어, 도덕, 국사,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모두 11과목이다. 모든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연구 시기 및 절차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의 문헌을 분석하였고, 동 시기에 음악경험에 대하여 연구대상에게 배포할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음악경험에 대한 설문지 조사는 2008년 4월 28일 ~ 5월 23일 기간 동안 A고등학교 인문계 1학년 전체남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악성 검사는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전체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상기 동기간에 실시하였고, 설문지 조사와 음악성 검사에 대한 결과는 7월에 집계하였다. 연구대상의 1학년 1학기 학업성적은 9월 초에 학교 측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11월 중순까지 통계처리 및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을 완성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1) 설문지 집계 방법

한 학생이 음악 사교육 경험이나 특별활동 경험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경우 각각의 경험 별로 모든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집계 및 통계처리 시 다음의 방법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①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학생들이 어떠한 음악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각각의 데이터로 처리하였다.

②경험의 시작시기: 여러 가지 경험 중 가장 빠른 시기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음악경험을 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음악경험을 한 경우 경험들 중 가장 빠른 시기를 이 학생의 음악경험 시작시기로 보았다.

③경험의 기간: 각 경험기간의 합

학생들이 음악경험에 노출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음악경험을 한 경우 경험의 기간을 모두 합하여 집계하였다.

④경험의 현재진행여부: 하나라도 '예'인 경우 '예'로 처리

학생들이 현재 음악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라도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이 학생은 현재 음악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⑤경험의 계속 경험 의지: 하나라도 '예'인 경우 '예'로 처리

학생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하였던 음악경험에 대하여 지속하고자 하는지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한 학생이 경험 별로 더 배우고 싶은 경험과 더 배우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함께 답변하였다면, 이것은 음악경험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어떤 경험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본인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경험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싶다면 학생이 음악경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더) 경험하고 싶다는 답변으로 처리하였다.

2) 통계처리 방법

음악경험, 음악성,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음악경험의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을 구분한 후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두 집단의 이분산, 등분산 가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초 자료 분석

1) 음악성 검사 결과 및 분석

연구대상의 음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악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IV-1> 음악성 검사 결과

	총 점	최하점	최고점	평 균	표준편차
리 듬	30	12	30	25.62	3.76
가 락	30	10	30	24.55	4.33
음악성 계	60	28	60	50.17	6.72

음악성 검사의 하위요소인 리듬의 최하점은 12점, 최고점은 30점이었으며, 연구대상의 평균은 25.62점, 표준편차는 3.76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하위요소인 가락의 최하점은 10점으로 리듬보다 낮았으며, 최고점은 30점이었다. 평균은 리듬보다 조금 낮은 24.55점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리듬보다 높은 4.33으로 학생간 차이가 리듬보다 크게 나타났다. 전체 음악성 합 의 최하점은 28점 이었다. 최고점은 총점인 60점으로 전체 275명 학생 중 5명의 학생이 최고점을 받았다. 평균은 50.17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72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연구 대상의 음악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험의 종류, 경험의 시작 시기, 경험의 기간, 현재진행 여부, 경험의 지속 의지,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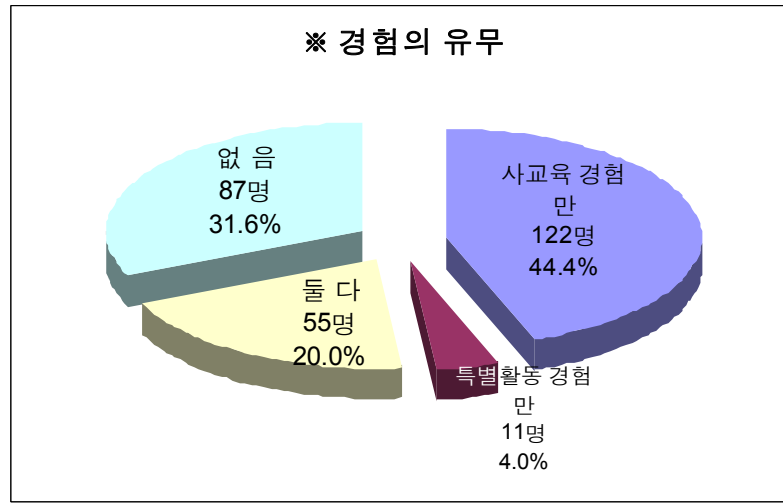
(1) 경험의 유무

음악 사교육만 경험한 학생은 전체 275명의 학생 중 122명으로 44.4%에 해당하며, 특별활동만 경험한 학생은 11명으로 4.0%에 해당한다.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을 모두 경험한 학생은 55명으로 20.0%였으며,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31.6%에 해당하는 87명이었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전체 275명의 학생 중 음악 사교육은 177명의 학생이 경험하였으며, 특별활동은 66명의 학생이 경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음악경험의 유경험자는 전체 275명 중 188명(68.4%)이며, 무경험자는 87명(31.6%)이다.

이로써 현재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비교적 타의에 의해 시작하게 되는 음악 사교육을 통하여 음악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1> 음악경험의 유무(n=275)



(2) 음악 사교육에 대한 질문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275명 중 음악 사교육 경험만 있는 학생 122명과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 55명을 합한 177명이다.

[질문1] 배웠던(배우고 있는) 악기(성악 포함)를 옆 칸에 모두 적어주세요.

학생들이 경험한 악기(성악 포함)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배우고 있거나 과거에 배웠던 악기(성악 포함)를 모두 적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아노를 선택한 학생은 154명으로 전체 음악 사교육 경험자 중 55.4%에 해당하였다. 학교 음악수업에서 사용되는 악기인 리코더는 32명(11.5%), 단소는 7명(2.5%)의 학생이 음악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기타아, 바이올린, 드럼의 순이었으며, 각각 20명(7.2%), 16명(5.8%), 12명(4.3%)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전통악기를 배운 학생은 전체 278명(중복답변) 중 18명(6.5%)이었으며, 장구, 단소, 대금, 사물놀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양악기에 비하여 전통악기에 대한 경험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여러 가지 악기 중 보편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피아노를 배운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학교 수업의 필요에 따라 음악 사교육을 받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악기를 접하는 기회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IV-2> 음악 사교육 경험의 종류(중복답변)

악기종류	인원(명)	백분율(%)
피아노	154	55.4
리코더	32	11.5
기타아	20	7.2
바이올린	16	5.8
드럼	12	4.3
장구	9	3.2
단소	7	2.5
플룻	7	2.5
성악	5	1.8
오카리나	4	1.4
클라리넷	3	1.1
하모니카	3	1.1
대금	1	0.4
보컬	1	0.4
사물놀이	1	0.4
작은북	1	0.4
첼로	1	0.4
리듬악기	1	0.4
합계	27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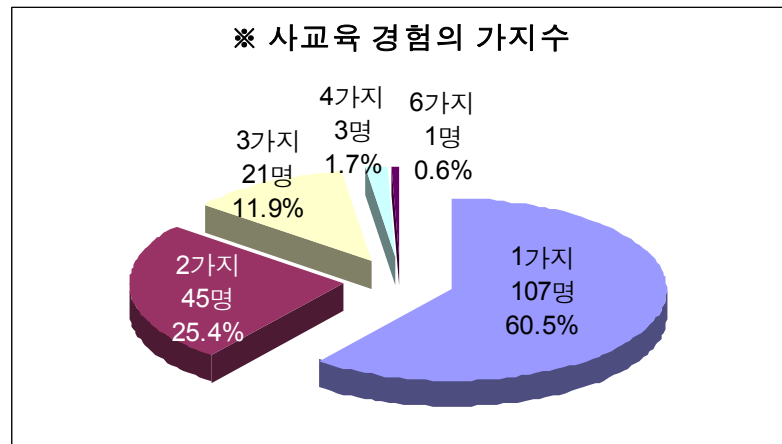
[질문1-1] 인당 음악 사교육 경험의 수

학생 한 명이 얼마나 여러 종류의 음악 사교육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전체 177명의 음악 사교육 경험자 중 가장 많은 학생인 107명(60.5%)은 한가지 악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2가지로 45명(25.4%)이 답변하였다. 3가지 악기를 경험한 학생은 21명(11.9%) 이었고, 4가지 악기를 경험한 학생은 3명(1.7%), 6가지 악기를 경험한 학생은 1명(0.6%)이었다.

이로써 현재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들 중 한 가지 악기를 배우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2> 인당 음악 사교육 경험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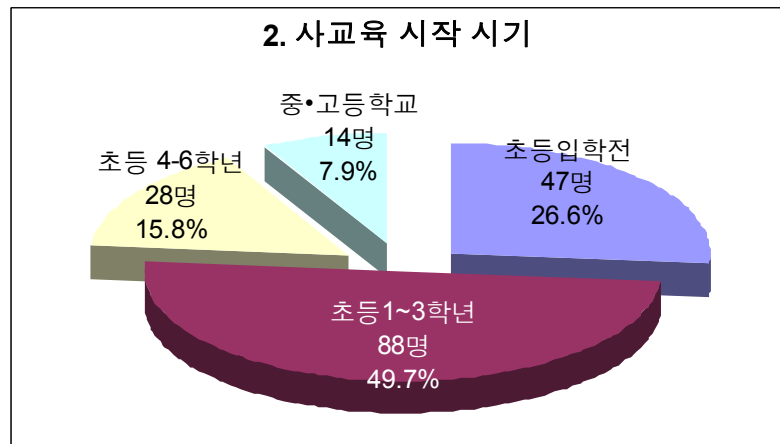
[질문2]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음악 사교육 경험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177명의 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인 88명(49.7%)의 학생이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에 음악 사교육을 처음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47명(26.6%)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다음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28명(15.8%)이었으며, 중·고등학교 시기에 음악 사교육 경험을 시작한 학생은 14명(7.9%)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5.5%인 116명의 학생은 초등학교 시기에 음악 사교육 경험을 시작하였으며, 경험자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음악 사교육 경험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린 시기에 음악 사교육을 시작함을 알 수 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음악 사교육에 대하여 부모나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3> 음악 사교육 경험의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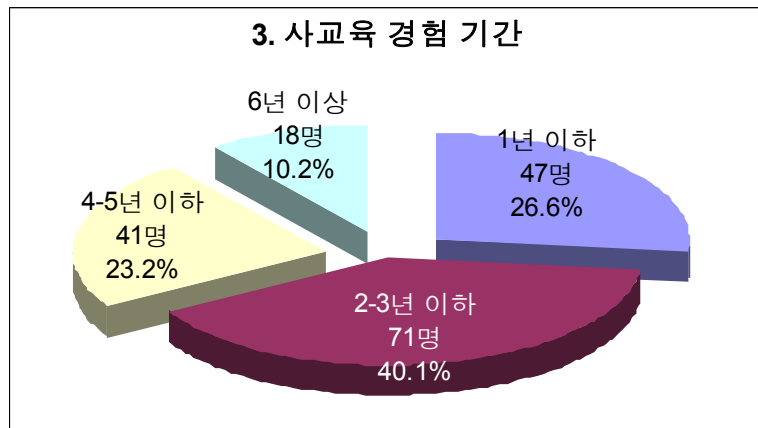
[질문3]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나요?

음악 사교육 경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장 많은 학생인 71명(40.1%)이 2~3년 이하로 답변하였다. 다음은 1년 이하와 4~5년 이하로 각각 47명(26.6%), 41명(23.2%)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6년 이상 경험한 학생은 18명(10.2%)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초등학교 시기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음악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 입학 을 기점으로 음악 사교육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IV-4> 음악 사교육의 경험 기간



[질문4] 지금도 배우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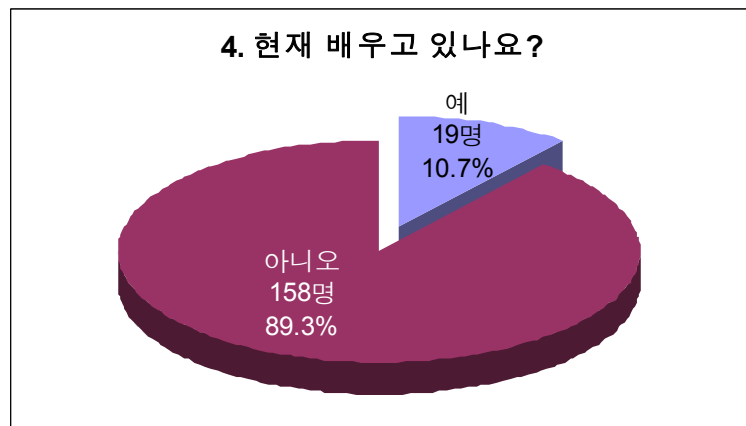
지금도 음악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경험자 중 158명(89.3%)이 현재 음악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10.7%에 해당하는 19명의 학생만이 음악 사교육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악 사교육을 받고 있는 19명의 학생은 기타아, 피아노, 드럼의 음악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이므로, 음악과 관련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음악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IV-5> 음악 사교육의 현재 진행 여부



[질문5]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더) 배우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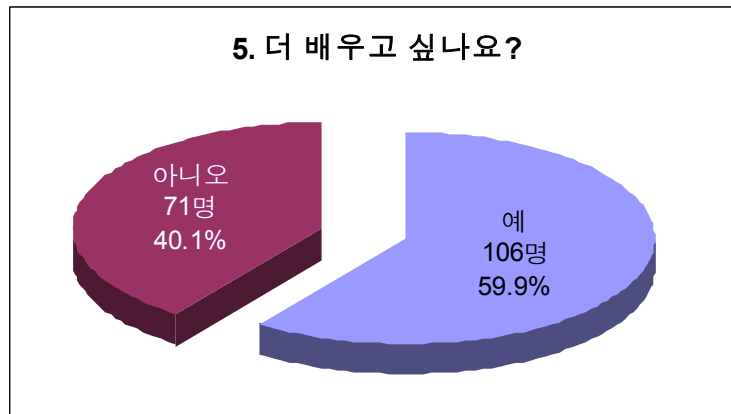
학생의 음악교육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이다.

전체의 59.9%에 해당하는 106명의 학생은 계속(더) 배우고 싶다고 답변하였으며, 40.1%에 해당하는 71명의 학생은 계속(더) 배우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음악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별활동에 비해 부정의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린 시기에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것에 기인하여, 자신의 흥미나 필요와 상관없이 부모나 교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여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경우, 음악 사교육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IV-6> 음악 사교육 경험을 더 하고 싶은지 여부



(3) 특별활동에 대한 질문

특별활동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275명 중 특별활동 경험만 있는 학생 11명과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 55명을 합한 66명이다.

[질문6] 어떤 종류의 특별활동인지 예를 참고하여 옆 칸에 모두 적어주세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음악과 관련된 어떤 특별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한 특별활동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답변한 특별활동은 밴드와 합창이었으며, 각각 17명(18.9%)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다음은 성가대, 사물놀이, 기타아 순이었으며 각각 12명(13.3%), 9명(10.0%), 7명(7.8%)이었다.

많은 학생이 공통으로 경험한 특별활동은 없었고 학생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문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다음의 표로 나타내었다.

<표Ⅳ-3> 특별활동 경험의 종류(중복답변)

특별활동 종류	인원(명)	백분율(%)	비 고
밴 드	17	18.9	합창반주 1명 포함
합 창	17	18.9	
성 가 대	12	13.3	
사물놀이	9	10.0	
기 타 아	7	7.8	
단 소	4	4.4	
오케스트라	4	4.4	
바이올린	3	3.3	
리 코 더	2	2.2	
중 창	2	2.2	
찬 양 팀	2	2.2	
클라리넷	2	2.2	
독 주	1	1.1	
드 럼	1	1.1	
아카펠라	1	1.1	
오카리나	1	1.1	
음악감상	1	1.1	
플 윗	1	1.1	
피 아 노	1	1.1	
합 주	1	1.1	
핸 드 벨	1	1.1	
합 계	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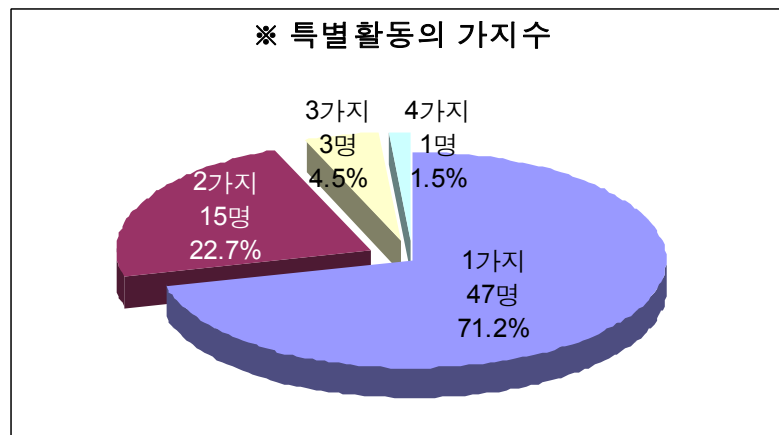
[질문6-1] 인당 특별활동 경험의 수

한 학생이 경험한 특별활동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수인 47명(71.2%)의 학생은 1가지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가지 경험으로 15명(22.7%)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3가지 경험은 3명(4.5%)이었으며, 4가지 경험은 1명(1.5%)이었다.

학생들이 경험한 특별활동의 종류를 볼 때,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1~2가지 경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IV-7> 인당 특별활동 경험의 수



[질문7] 어디에서 활동하는 특별활동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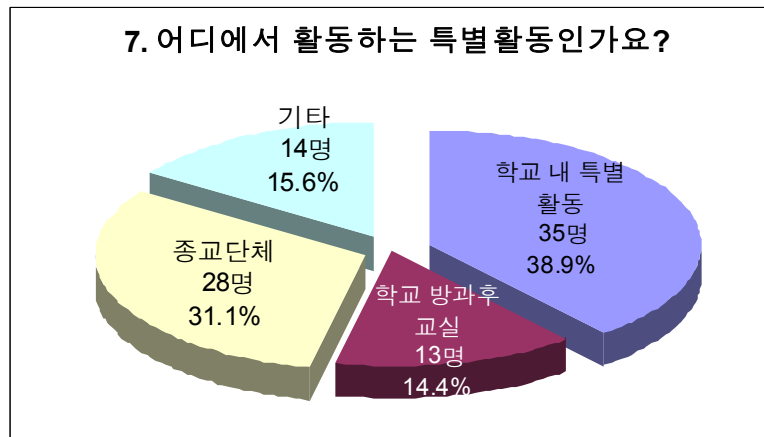
특별활동을 주관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학교 내 특별활동을 경험한 학생은 35명(38.9%)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답변하였다. 다음은 종교단체로 28명(31.1%)의 학생이 답변하였고, 학교 방과후 교실은 13명(14.4%)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기타 답변은 14명

(15.6%)이었으며, 기타의 내용은 친구들끼리(4명), 사설기관, 수련관, 외부 행사(각 2명), 학원, 연습실, 유치원, 학교(학교의 공식 활동이 아님, 각1명)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관리하거나 개설하는 특별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48명으로 5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음악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음악경험을 제공 할 통로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8>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중복답변)



[질문8] 언제 처음 활동을 시작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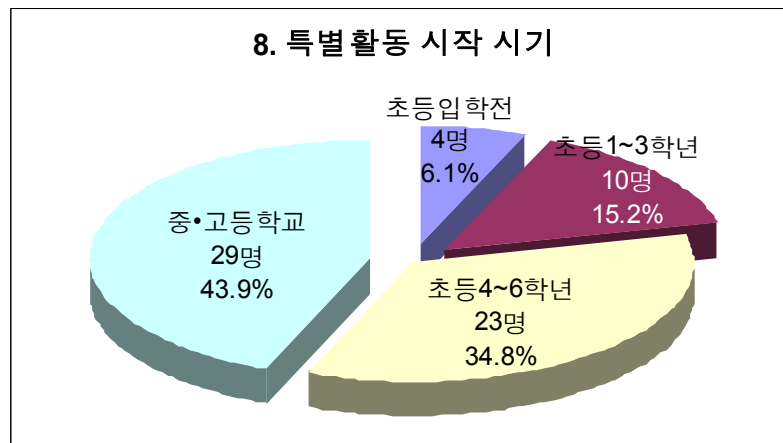
특별활동을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질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29명(43.9%)의 학생은 중·고등학교 때 처음 특별활동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이전에 주로 경험이 시작된 음악 사교육 경험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보통 본인의 흥미에 의하여 선택하게 되는 특별활동의 경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

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경험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23명(34.8%)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은 10명(15.2%), 초등학교 입학 전은 4명(6.1%)으로 나타났다.

음악 사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을 시작하는 학생의 수가 감소한 반면 특별활동 경험은 증가하였다. 음악 사교육을 통하여 음악에 흥미를 얻은 학생들 중 더 이상 음악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특별활동으로 전향하였거나, 음악 사교육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뒤늦게 음악경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9> 특별활동 경험의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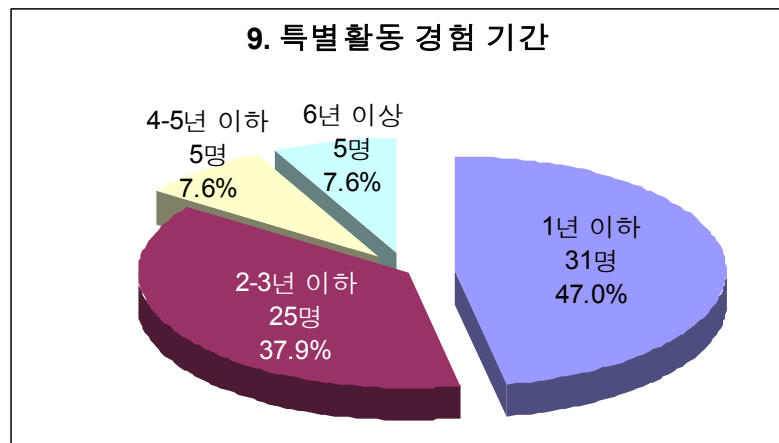
[질문9]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나요?

특별활동을 얼마나 오랜 기간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1년 이하로 답변한 학생은 31명으로 전체의 47.0%에 해당하며, 다음은 2~3년 이하로 37.9%인 25명이 답변하였다. 4~5년 이하와 6년 이상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각각 5명(7.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어 특별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그만큼 경험의 기간도 짧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IV-10> 특별활동의 경험 기간



[질문10]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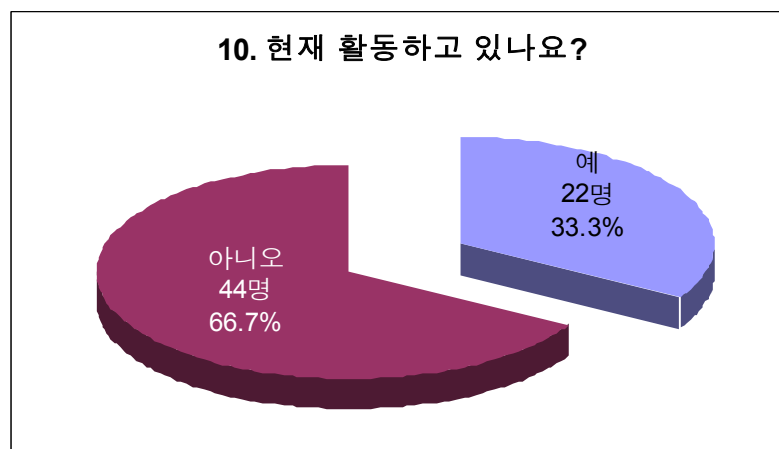
현재도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22명(33.3%), 활동하지 않는 학생은 44명

(66.7%)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경험이 음악 사교육 경험에 비하여 경험기간은 짧은 반면, 현재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특별활동 경험을 중·고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11> 특별활동의 현재 진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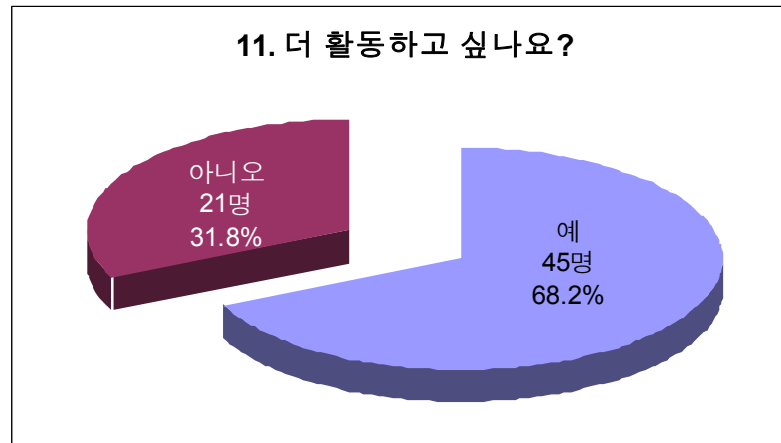
[질문11]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더) 활동하고 싶나요?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혹은 경험하였던) 특별활동을 계속(더)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다.

계속(더) 활동하고 싶다고 답변한 학생은 45명(68.2%)으로 나타났고, 31.8%에 해당하는 21명의 학생은 계속(더) 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경험에 대한 의지는 특별활동 경험이 음악 사교육 경험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본인의 흥미에 따라 시작하게 되는 특별활동이 음악 사교육에 비하여 학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음악경험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12> 특별활동 경험을 더 하고 싶은지 여부



(4)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질문

[질문12]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음악을 전공한(전공할 계획인) 분이 있나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음악을 전공하거나 전공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36명으로 13.1%에 해당하고, 없다고 답한 학생 239명으로 86.9%에 해당한다.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질문 중 답변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이었다.

[질문13]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음악교육을 받았거나, 음악활동(성가대, 어머니합창단 등)을 한 분이 있나요?

음악교육이나 음악활동을 한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82명(29.8%)이고, 없다고 답변한 학생은 193명(70.2%)이다.

[질문14] 가족 중에 집에서 노래부르기를 즐기는 분이 있나요?

가정에서 노래를 즐기는 가족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129명(46.9%)이고, 없다고 답변한 학생은 146명(53.1%)으로 비슷한 비율로 답변하였다.

[질문15] 가족 중에 집에서 악기연주를 하는 분이 있나요?

가정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71명(25.8%)이고, 없다고 답변한 학생은 204명(74.2%)이다.

[질문16] 가정에서 TV나 라디오의 음악프로그램을 즐겨 보나요(듣나요)?

가정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즐겨 보거나 듣는다고 답변한 학생은 186명(67.6%)이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학생은 89명(32.4%)이다. 가정의 음

악적 환경에 대한 질문 중 유일하게 긍정의 답이 부정의 답보다 많았다.

[질문17] 당신이 노래를 하거나, 악기연주나, 음악감상 시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거나 격려해 주시나요?

학생의 음악활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08명(39.3%)이고,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67명(60.7%)이다. 학생의 음악경험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이 더 많다는 것은 연구대상이 모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기이므로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음악경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18]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CD, 테이프, 레코드판(대중가요 제외)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가정에서 보유한 음반의 수가 10개 이상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12명(40.7%)이고, 10개 미만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63명(59.3%)이다.

[질문19]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악관련서적(악보, 음악사전, 음악전문잡지 등)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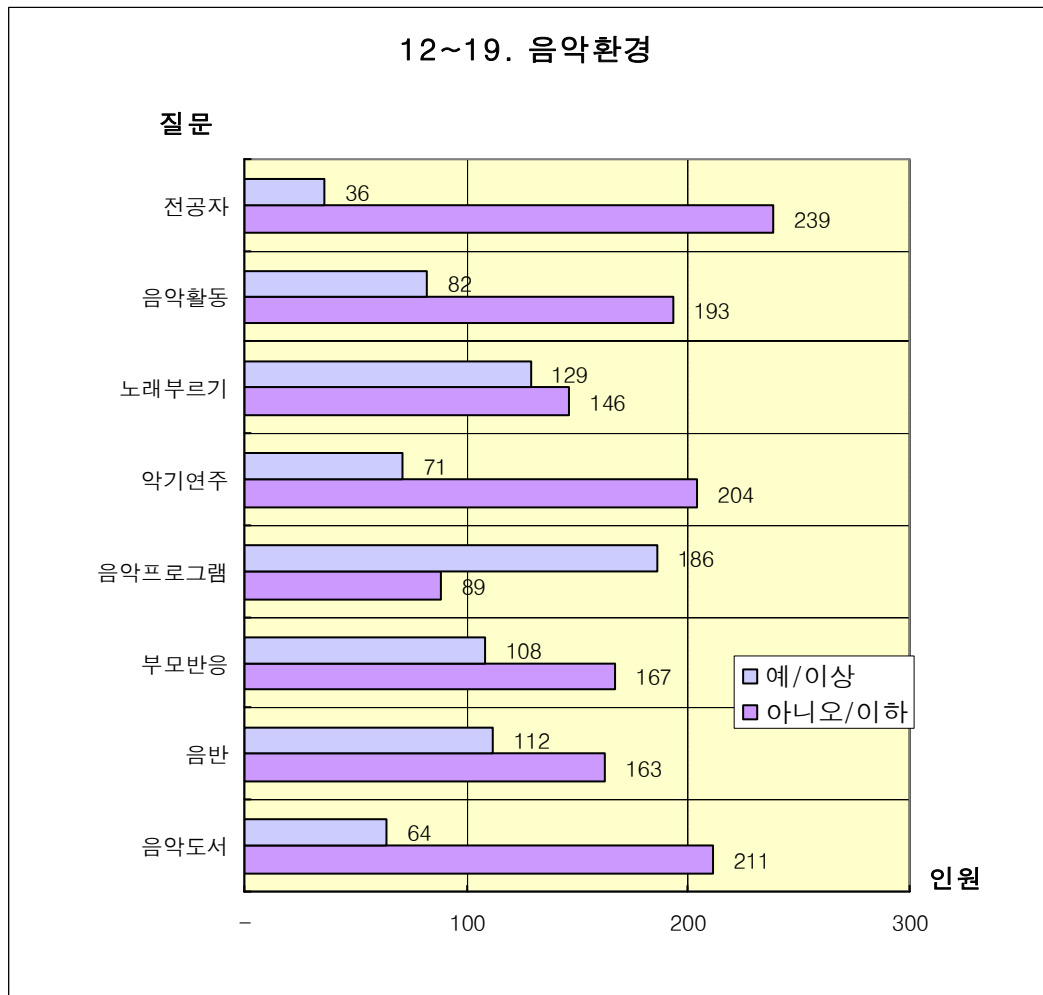
가정에서 보유한 음악관련 서적의 수가 5권 이상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64명(23.3%)이고, 5권 미만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211명(76.7%)이다. 음반 보유수준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음악적 환경은 ‘가정에서 TV 나 라디오의 음악프로그램을 즐겨 보나요(듣나요)?’ 에 대한 문항만 유일하게 긍정의 답변이 부정의 답변보다 높았다. 그 외 문항 중 ‘가족 중 집에서 노래부르기를 즐기는 구성원이 있

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 나머지 문항에서는 낮은 음악적 환경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현재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음악 사교육, 특별활동 경험뿐 아니라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서도 충분한 음악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Ⅳ-13> 가정의 음악적 환경



2. 음악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

1) 음악 사교육과 음악성

음악경험 중 음악 사교육 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사교육 경험의 하위변인인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와 음악성의 하위변인인 리듬, 가락, 음악성 합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4> 음악 사교육과 음악성의 상관관계

음악사교육	리듬	가락	합계
종류의 수	0.138*	0.186**	0.197**
시작시기	0.136*	0.235**	0.227**
경험기간	0.122*	0.251**	0.230**
현재진행여부	0.140*	0.214**	0.217**

* p<.05 ** p<.01

음악 사교육 경험과 리듬의 상관관계에서, 리듬은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와 0.138, 시작시기와 0.136, 경험기간과 0.122, 현재진행여부와 0.140으로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 사교육 경험과 가락의 상관관계에서, 가락은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와 0.186, 시작시기와 0.235, 경험기간과 0.251, 현재진행여부와 0.21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악 사교육 경험과 음악성합계의 상관관계에서, 음악성합계는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와 0.197, 시작시기와 0.227, 경험기간과 0.230, 현재진

행여부와 0.21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 사교육의 경험기간과 가락은 0.25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음악 사교육의 시작시기와 가락으로 0.235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음악 사교육 경험과 음악성은 전 부분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리듬에 비하여 가락이 음악 사교육 경험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음악 사교육 경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음악성 중 가락임을 알 수 있다.

2) 특별활동과 음악성

음악경험 중 특별활동 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별활동의 하위변인인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와 음악성의 하위변인인 리듬, 가락, 음악성 합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5> 특별활동과 음악성의 상관관계

특별활동	리듬	가 락	합 계
종류의 수	0.033	0.122*	0.097
시작시기	0.053	0.145*	0.123*
경험기간	0.004	0.108	0.067
현재진행여부	0.025	0.151*	0.111

* p<.05 ** p<.01

특별활동 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에서, 리듬은 특별활동의 하위변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가락은 특별활동의 하위변인 중 종류의 수, 시작시기, 현재진행여부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락과 특별활동의 상관관계에서, 가락은 특별활동의 종류의 수와 0.122, 시작시기와 0.145, 현재진행여부와 0.151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음악성의 합과 시작시기의 상관계수는 0.12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악 사교육이 음악성과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인 것에 반하여 특별활동 경험은 음악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음악학습이 가능한 음악 사교육 경험이 흥미위주의 특별활동에 비하여 음악성 신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음악경험의 합과 음악성

한 학생이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을 모두 경험한 경우, 경험 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경험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사교육은 수년간 경험하였고 특별활동은 단 몇 개월을 경험하였다면, 특별활동의 경험의 수준은 낮지만 높은 수준의 음악 사교육의 영향을 받아 특별활동에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사교육 경험과 특별활동 경험을 합한 음악경험과 음악성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6> 음악경험의 합과 음악성의 상관관계

	리듬	가락	합계
종류의 수	0.116	0.194**	0.190**
시작시기	0.146*	0.236**	0.234**
경험기간	0.092	0.242**	0.208**
현재진행여부	0.090	0.238**	0.204**

* p<.05 ** p<.01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 경험을 합한 음악경험과 리듬의 상관관계에서, 리듬은 음악경험의 시작시기와 0.14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외 하위변인인 경험의 수,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와 리듬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반면 가락과 음악경험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락은 음악경험의 종류의 수와 0.194, 시작시기와 0.236, 경험기간과 0.242, 현재진행여부와 0.23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성 합과 음악경험의 상관관계 역시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성 합과 음악경험의 상관관계에서, 음악성 합은 음악경험의 종류의 수와 0.190, 시작시기와 0.234, 경험기간과 0.208, 현재진행여부와 0.20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 사교육 경험과 마찬가지로 가락과 경험기간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가락과 시작시기, 가락과 현재진행여부, 음악성 합과 시작시기에서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음악경험은 음악성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가락을 분별하는 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음악성

학생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음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7>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음악성의 상관관계

환 경	리 득	가 락	합 계
가족 중 전공자	0.050	0.135*	0.059
가족 중 음악활동	0.025	0.117	0.062
가족 중 노래	0.014	0.165**	0.114
가족 중 악기연주	0.022	0.107	0.057
음악프로그램	0.037	0.011	0.014
부모반응	0.009	0.068	0.039
음반의 수	0.025	0.196**	0.14*
음악관련 도서의 수	0.125*	0.242**	0.226**
경험에 대한 합	0.023	0.225**	0.158**

* p<.05 ** p<.01

<표IV-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의 음악적 환경 중 가족 중에 음악 전공자(또는 음악을 전공할 계획을 가진 가족)가 있는 경우, 노래를 즐기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음반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음악관련 도서의 수가 5권 이상인 경우, 경험의 합에서 음악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리듬과 가정의 음악적 환경의 상관관계에서, 리듬은 음악관련 도서의 수와 0.125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리듬에 비하여 가락이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락은 가족 중 전공자의 유무와 0.135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가락은 노래를 즐기는 가족의 유무와 0.165, 음반의 수와 0.196, 음악관련 도서의 수와 0.242, 경험의 합과 0.225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성 합과 가정의 음악적 환경의 상관관계에서, 음악성 합은 음반의 수와 0.14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악관련 도서의 수와 0.226, 경험에 대한 합과 0.15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음악적 환경 또한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듬에 비하여 가락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의 음악적 환경 중 음악관련 도서의 수가 음악성의 전 부분과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흥미로웠는데, 음악도서를 보유하고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관심과 흥미가 음악성 신장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5) 음악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음악성 평균 차이

음악경험의 유무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 음악성 평균의 차이를 t-검정을 사용하여 다음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F-검정 결과에 따라 리듬은 등분산 가정, 가락과 음악성 합은 이분산 가정으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IV-8> 음악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음악성 평균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양측)
리듬	유경험 집단	188	25.88	12.46	1.687	0.093
	무경험 집단	87	25.06	17.54		
가락	유경험 집단	188	25.23	15.42	3.630	0.000
	무경험 집단	87	23.08	23.33		
음악성계	유경험 집단	188	51.11	36.80	3.193	0.002
	무경험 집단	87	48.14	58.17		

유경험집단의 리듬 평균은 25.88, 표준편차는 12.46으로 나타났고, 무경험집단의 리듬 평균은 25.06, 표준편차는 17.54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리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93이므로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듬은 음악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험집단의 가락 평균은 25.23, 표준편차는 15.42로 나타났고, 무경험집단의 가락 평균은 23.08, 표준편차는 23.3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락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0이므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경험집단의 음악성 합 평균은 51.11, 표준편차는 36.80으로 나타났고, 무경험집단의 음악성 합 평균은 48.14, 표준편차는 58.17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음악성 합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2이므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로써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음악성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가락을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음악경험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1) 음악 사교육과 학업성적

음악 사교육 경험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사교육의 하위변인인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와 전과목 성적 및 총점과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9> 음악 사교육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음악사교육 경험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
국 어	0.103	0.214**	0.133*	0.106
도 덕	0.142*	0.198**	0.113	0.109
국 사	0.098	0.134*	0.121*	0.052
사 회	0.133*	0.171**	0.155**	0.097
수 학	0.143*	0.220**	0.159**	0.119*
과 학	0.135*	0.205**	0.148*	0.103
기술가정	0.161**	0.194**	0.160**	0.123*
체 육	0.126*	0.194**	0.175**	0.104
음 악	0.154*	0.186**	0.193**	0.154*
미 술	0.154*	0.209**	0.174**	0.148*
영 어	0.160**	0.243**	0.213**	0.134*
총 점	0.150*	0.220**	0.174**	0.123*

* p<.05 ** p<.01

<표IV-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 사교육의 시작시기와 학업성적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악 사교육의 경험기간도 학업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먼저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와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는 국어, 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술가정과 영어는 각각 0.161, 0.160($p < .01$)으로 타 과목에 비하여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악 사교육의 시작시기는 전 과목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 사교육의 종류의 수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국사는 시작시기에서도 타 과목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0.134, $p < .05$) 국사과목을 제외한 전과목은 시작시기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영어 0.243, 수학 0.220, 총점 0.220, 국어 0.214의 순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경험기간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경험기간은 도덕과목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국어와 국사, 과학과목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외 과목은 경험기간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현재진행여부는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영어, 총점과 유의수준 0.05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린 시기에 음악 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얼마나 충분히 음악을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학업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특별활동과 학업성적

특별활동 경험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별활동의 하위변인인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와 전과목 성적 및 총점과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0> 특별활동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특별활동 경험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 진행여부
국 어	0.065	0.104	0.055	0.028
도 덕	0.053	0.061	0.046	0.020
국 사	0.042	0.073	0.038	0.007
사 회	0.069	0.103	0.061	0.020
수 학	0.058	0.120*	0.050	0.011
과 학	0.061	0.091	0.054	0.007
기술가정	0.107	0.149*	0.103	0.061
체 육	0.006	0.056	0.010	0.018
음 악	0.170**	0.195**	0.167**	0.122*
미 술	0.081	0.109	0.060	0.045
영 어	0.057	0.115	0.047	0.020
총 점	0.075	0.118*	0.068	0.020

* p<.05 ** p<.01

음악과목은 특별활동 경험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과목은 특별활동의 종류의 수와 0.170, 시작시

기와 0.195, 경험기간과 0.16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음악과목은 특별활동의 현재진행여부와 0.122로 유의수준 0.05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외 특별활동의 시작시기는 학업성적 중 수학, 기술가정, 총점과 각각 0.120, 0.149, 0.118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별활동 경험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는 음악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대부분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는 음악 사교육 경험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에서 대부분의 과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3) 음악경험의 합과 학업성적

음악 사교육 경험과 특별활동 경험을 합한 음악경험의 합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IV-11> 음악경험의 합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경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 진행 여부
국어	0.106	0.230**	0.127*	0.106
도덕	0.129*	0.208**	0.108	0.086
국사	0.091	0.156**	0.110	0.053
사회	0.129*	0.183**	0.147*	0.078
수학	0.132*	0.231**	0.145*	0.081
과학	0.127*	0.215**	0.138*	0.072
기술가정	0.168**	0.217**	0.170**	0.117
체육	0.094	0.212**	0.140*	0.122*
음악	0.193**	0.217**	0.225**	0.181**
미술	0.151*	0.213**	0.161**	0.117
영어	0.144*	0.259**	0.186**	0.120*
총점	0.145*	0.238**	0.164**	0.108

* p<.05 ** p<.01

음악경험의 합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경험의 시작시기는 모든 과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경험기간으로 대부분의 과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목은 경험의 모든 하위변인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음악경험의 시작시기는 영어와 0.259, 총점과 0.238, 수학과 0.231, 국어와 0.230로 유의수준 0.01에서 타 과목에 비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목과 음악경험의 상관관계에서, 음악과목은 음악경험의 경험기간과 0.225, 시작시기와 0.217, 경험의 수와 0.193, 현재진행여부와 0.181로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린 시기에 음악경험을 시작한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으며, 음악경험을 통하여 가장 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은 음악임을 알 수 있다.

4)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학업성적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학업성적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2>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가족 중 전공자	가족 중 음악활동	가족 중 노래	가족 중 악기연주	음악 프로그램	부모반응	음반의 수	음악관련 도서의 수	경험에 대한 합
국 어	0.027	0.013	0.054	0.052	0.075	0.015	0.148*	0.023	0.013
도 덕	0.039	0.020	0.028	0.032	0.011	0.018	0.150*	0.018	0.023
국 사	0.002	0.004	0.046	0.039	0.070	0.032	0.180**	0.009	0.003
사 회	0.008	0.003	0.028	0.034	0.062	0.018	0.204**	0.023	0.032
수 학	0.012	0.030	0.079	0.085	0.099	0.000	0.155**	0.027	0.023
과 학	0.001	0.022	0.073	0.053	0.099	0.003	0.183**	0.024	0.001
기술가정	0.016	0.023	0.014	0.012	0.040	0.001	0.176**	0.036	0.043
체 육	0.057	0.024	0.158**	0.040	0.075	0.051	0.167**	0.041	0.111
음 악	0.064	0.018	0.091	0.026	0.002	0.155*	0.233**	0.108	0.160**
미 술	0.059	0.077	0.034	0.061	0.040	0.033	0.183**	0.050	0.103
영 어	0.059	0.007	0.002	0.011	0.079	0.034	0.177**	0.057	0.050
총 점	0.025	0.009	0.026	0.031	0.067	0.008	0.195**	0.023	0.032

* p<.05 ** p<.01

<표IV-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음악적 환경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에서 학업성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음반의 수가 모든 과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음악과목과 음반의 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0.233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음악을 듣는 청각적 훈련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음악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학업성적 평균 차이

음악경험의 유무에 따라 두 집단 간의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3> 음악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학업성적 평균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양측)
국어	유경험 집단	188	71.63	338.70	2.728	0.007
	무경험 집단	87	64.84	433.00		
도덕	유경험 집단	188	75.65	251.23	2.685	0.008
	무경험 집단	87	70.10	260.29		
국사	유경험 집단	188	53.23	752.79	1.883	0.061
	무경험 집단	87	46.64	677.65		
사회	유경험 집단	188	58.18	555.14	2.275	0.024
	무경험 집단	87	51.17	584.26		
수학	유경험 집단	188	67.78	511.31	3.217	0.001
	무경험 집단	87	58.26	541.33		
과학	유경험 집단	188	56.41	641.71	2.558	0.011
	무경험 집단	87	47.99	648.89		
기술가정	유경험 집단	188	68.93	169.97	2.913	0.004
	무경험 집단	87	64.02	166.36		
체육	유경험 집단	188	79.85	37.38	3.079	0.002
	무경험 집단	87	77.46	31.98		
음악	유경험 집단	188	79.77	119.21	3.425	0.001
	무경험 집단	87	75.13	87.24		
미술	유경험 집단	188	76.70	110.93	2.882	0.004
	무경험 집단	87	72.76	111.61		
영어	유경험 집단	188	63.48	624.59	3.282	0.001
	무경험 집단	87	52.73	667.25		
총점	유경험 집단	188	818.93	37,606.01	3.072	0.002
	무경험 집단	87	741.84	37,107.97		

음악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학업성적 중 평균의 차이가 큰 과목은 영어 10.75점, 수학 9.52점, 과학 8.42점으로 나타났다. 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은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타 과목에 비하여 수학, 음악, 영어과목은 t-검정통계량이 0.001으로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음악경험의 유무에 따라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음악성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음악성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성의 하위변인인 리듬, 가락, 음악성 합과 전체 11과목의 과목별 점수 및 총점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4> 음악성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리듬	가락	합계
국 어	0.225**	0.236**	0.278**
도 덕	0.172**	0.258**	0.262**
국 사	0.184**	0.181**	0.220**
사 회	0.199**	0.209**	0.246**
수 학	0.142*	0.123*	0.159**
과 학	0.187**	0.198**	0.233**
기술가정	0.210**	0.258**	0.284**
체 육	0.202**	0.130*	0.197**
음 악	0.321**	0.388**	0.430**
미 술	0.208**	0.305**	0.313**
영 어	0.186**	0.244**	0.262**
총 점	0.219**	0.248**	0.282**

* p<.05 ** p<.01

음악성의 하위변인인 리듬, 가락, 음악성 합과 모든 과목의 성적 및 총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과목은 음악으로, 음악과목은 리듬과 0.321, 가락과 0.388, 음악성 합과 0.43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학과목은 리듬과 0.142, 가락과 0.12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타 과목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리듬에 비해 가락이 학업성적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악, 미술, 기술가정, 총점의 순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음악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적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음악경험 현황은 첫째, 음악경험의 유경험자의 수(188명, 68.4%)가 무경험자의 수(87명 31.6%)보다 많았으며, 음악 사교육 경험만(44.4%), 둘 다(20.0%), 특별활동 경험만(4.0%)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 사교육 경험자의 55.4%(중복답변)는 피아노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경험은 밴드와 합창이 각각 18.9%(중복답변)로 가장 많은 학생이 답변하였다. 셋째, 음악 사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을 시작하는 학생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특별활동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넷째, 학교에서 관리하거나 개설하는 특별활동(학교 내 특별활동, 방과후 교실)을 경험한 학생이 53.3%로 가장 많았다.

음악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는 첫째, 음악경험의 하위변인인 경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는 리듬보다 가락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194, .236, .242, .238, p<.01$) 둘째, 음악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는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 경험의 수 순서로 나타났

다. ($r=.234, .208, .204, .190$ $p<.01$) 셋째, 음악 사교육 경험과 음악성은 전 부분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특별활동 경험은 리듬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넷째, 음악경험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t-검정에서 리듬부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가락·음악성합계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1$ $t=3.630, 3.193$)

음악경험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는 첫째, 음악경험의 시작시기는 전과목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영어, 총점, 수학, 국어과목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259, .238, .231, .230$ $p<.01$) 둘째, 음악 사교육 경험과 학업성적은 음악경험의 시작시기, 경험기간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특별활동 경험은 음악과목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서는 음반의 수 부분이 전 과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넷째, 음악경험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t-검정에서 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수학, 음악, 영어과목이 두드러졌다. ($p<.001$ $t=3.217, 3.425, 3.282$)

음악성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는 첫째, 음악성과 전과목 학업성적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음악성합계와 학업성적의 상관관계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총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r=.430, .313, .284, .282$ $p<.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경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도움을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인문계 1학년 남학생(n=275)을 대상으로 음악경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음악경험과 음악성 및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높은 수준의 음악경험은 음악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음악경험과 음악성의 상관관계에서, 음악경험의 하위변인인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는 음악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0.190, 0.234, 0.208, 0.204 $p < .01$).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음악경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음악경험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으며, 음악경험을 지속하기 원하는 학생의 수에 비하여 실제로 음악경험을 지속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음악경험의 기간도 음악성 신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음악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음악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음악경험은 어린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악경험과 음악성·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음

악경험의 시작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기에 음악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음악성과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r=.234, .238 \quad p<.01$) 실제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음악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의 음악교육학자인 코다이(Zoltan Kodaly)는 진정한 음악교육은 유아가 태어나기 9개월 전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고든은 9세경까지를 음악환경에 의해 음악적성이 변화되는 유동적 음악적성의 단계로 보았다. 즉 음악능력의 발달은 어린 시기에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린 시기부터 만족감을 주는 충분한 음악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는 음악적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음악경험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의 31.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음악교육이나 음악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관리하거나 개설하는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48명, 53.3%)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있어, 학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악에 대한 흥미나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음악을 전공할 학생이 아니라면, 음악과 관련된 특별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하기 어렵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음악경험을 쉽게 접할 장소나 시간이 부족하다. 설문결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생과 가장 밀접한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고등학교 시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경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음악경험의 시작시기를 분석한 결과, 음악 사교육을 시작한

학생의 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으나, 특별활동을 시작한 학생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음악경험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경험을 계속하고 싶은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특별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68.2%)이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59.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경험한 특별활동이 학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뒤늦게 음악에 흥미를 느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만족스런 음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음악경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체계를 갖춘 음악경험이 더욱 효과적이다. 음악경험 중 음악 사교육 경험은 특별활동 경험에 비하여 음악성·학업성적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악성과 음악경험의 상관관계에서, 음악성은 음악 사교육 경험의 하위변인인 종류의 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와 모두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0.197, 0.227, 0.230, 0.217 $p<.01$) 반면, 특별활동 경험은 유일하게 시작시기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0.123 $p<.05$) 또한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음악 사교육 경험이 특별활동 경험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악 사교육 경험을 통해 음악성과 학업성적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 사교육은 특정한 음악적 성취를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학원에서는 레슨을 통해 학생들의 연주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증되고 체계적인 교재와 교수방법 등을 사용한다. 반면 특별활동 경험은 흥미를 충족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체계적으로 구성된 음악 사교육 경험이 음악성 신장과 학업성

취에 더욱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음악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활동도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음악적인 성취를 고려한 체계적인 내용과 운영이 필요하다.

2. 제언 및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경험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경험의 시작시기와 음악성 및 학업성적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음악경험은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 시기에는 아이의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교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는 아이의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적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음악적 경험을 늘려주어야 한다. 2007년 통계청 조사¹에 의하면, 음악교육의 참여율은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의 음악교육 참여율은 고졸 부모의 자녀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8%, 32.6%) 이렇듯 가정의 형편이나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적기에 음악경험을 쌓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다양한 음악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설문지의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결과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측정

¹ 통계청 (2008),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표9>부모의 교육정도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http://www.nso.go.kr>>

도구가 필수적이다. 음악경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하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경험을 음악 사교육, 특별활동, 가정의 음악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경험의 종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진행여부, 지속적인 경험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더욱 신뢰 있는 설문지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의 여러 구성요소를 고려한 음악성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리듬과 가락 외에 화성, 음색, 속도, 강약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학생의 여러 가지 음악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집단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의 보편성이 입증되도록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별책12)」,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권덕원 외(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강일, 김명옥(2005), 「예능에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서울: 예
담프렌드.
- 석문주 외(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옥형 외(2005), 「교육심리학」, 서울: 집문당.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현경실(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학지사.

2. 학술연구지

- 김서경(1990), “음악학습에 있어 음악성의 의미에 관한 고찰”, 부산
교육대학 논문집, 199~217쪽.
- 승윤희(2000),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교육의 역할”, 음악교육연구
제19집, 109~130쪽.
- 유성옥(2001), “유아의 음악경험과 음악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 Amadeu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Vol. 2. 321~357쪽.

- 이혜진, 박주성(2002), “유아 음악 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 학생생활연구 제7집, 55~83쪽.
- 조효임, 최은식, 정진원(1996), “한국 초등 학생의 음악 적성에 관한 연구” : 고든의 중급 음악적성검사(IMMA)에 근거하여, 음악교육 연구 제15집, 437~471쪽.
- 주대창(2000), “음악성의 교육적 의미” , 음악과민족 19호, 216~243쪽.
- 한국음악용어연구소(1992), “음악적 재능과 음악성” , 음악과 민족 4권, 315~319쪽.
- 현경실(1994), “음악소질 형성과정과 한국음악 소질검사 제작을 위한 방안 연구” , 국악교육, 33~55쪽.
- 황병훈(1990),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음악 교육평가 체제 연구 (I)” : 음악과 교육의 역할 및 평가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3. 학위 논문

- 배성애(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주현(2003),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보숙(2005), “음악 사교육 경험과 초등학생의 음악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 ,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희(2000), “음악성적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와 음악성적에 미치는 음악 환경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선(2006), “피아노 조기교육이 음악적성, 학업성적에 미치는 상관성 연구” ,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윤경(2002), “음악적 경험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최향희(2005),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헌 연구” : 역사적, 심미적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진경(2004), “음악적성과 수학성적 및 행동특성의 상관관계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은진(2004), “아동기 조기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4. 웹 사이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 <http://cutis.mest.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마이데일리 뉴스 <http://www.mydaily.co.kr>
- 메디컬투데이 뉴스 <http://www.mdtoday.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조선일보 <http://health.chosun.com>
- 통계청 <http://www.nso.go.kr>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Experience, Music Aptitude and School Records

– Research concentrated on high school freshmen –

Cho, Yun kyu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usical experiences of Korean students as well as a correlation among the musical experiences, their music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to prove the importance of and need for musical experience,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make a case for music education.

We established following questions to achieve study purpose. First, what about study subject's music experience? Second, wha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musical experience and musicality? Third, wha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music experi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Fourth, wha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music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To answer these questions, 275 high school freshmen were set as study's subject and the Korean Music Aptitude Test(KMAT) made by Kyung Sil Hyun, a questionnaire about musical experience, and the grade report of their first semester were used.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in SPSS 15.0 programs.

First, subject's musical experience condition was low. Large par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experienced only 1 type of musical training either private music education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60.5%, 71.2%). As for the training period, 2 to 3 years of private tutoring(40.1%), and less than 1 year(47.0%) were most common. 'Degree of music program listening' was the only question that received more positive than negative responds in the section of home musical environment.

Seco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experienced private music education decreased as grade went up, but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reased in contrary.

Third,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udents engage in are mostly offered by school. (53.3%)

Fourth, it was the 'Beginning time' that display the biggest interrelation between music experience and musicality · school records in terms of music experience. ($r=.234, .238$ $p<.01$)

Last, it was 'Tune' that display the big interrelation between music experience and musicality · school records in terms of musicality.

We found ou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nterrelation between level of music experience and musicality · school records. Also, we notified that music experience is more effective when it is experienced when students are young. Therefore, school and parents should offer enough concerns to students for their proper music experience.

It is recommended to modify the questionnaire to measure various music experience. For a measurement of various musical area except rhythm and tune, we need to develop a standardized musicality measure. At the conclusion, we propose a continuous study expanding to larger area for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음악경험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에서는 '음악경험'을 <사교육>과 <특별활동>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사교육>이란,
기악, 성악, 국악 등 학교의 정규과정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피아노 학원 등이 그 예입니다.

<특별활동>이란,
본인의 흥미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음악활동으로 학교 동아리(합창, 중창, 밴드 등), 교내 합창단, 방과후 교실, 교회 성가대 등이 그 예입니다.

설문내용은 전산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가 뜻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 中 질문이 있으시면 가볍게 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조 윤 경 드림

설문지 작성 방법

만약 <사교육 경험>이 2개 이상이거나 <특별활동 경험>이 2개 이상이라면
경험의 종류를 각각 적고 경험마다 각각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활동>으로 학교합창단과 교회성가대에서 활동했다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 특별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보세요 ·★		
6. 어떤 종류의 특별활동인지 예를 참고하여 열 칸에 모두 적어주세요. 한 칸에 하나씩~ (예: 합창, 중창, 사물놀이, 밴드, 오케스트라, 핸드벨 연주, 단소, 바이올린 등) ● 7-11번은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오른쪽 빈칸의 해당란에 적어주세요.	합창	성가대
7. 어디에서 활동하는 특별활동인가요? 보기 중에 없으면 빈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① 학교 내 특별활동 ② 학교 방과후 교실 ③ 종교단체 ④ 그 외(열칸에 자세히)	1	3
8. 언제 처음 활동을 시작했나요? ① 초등 입학전 ② 초등 1-3학년 ③ 초등 4-6학년 ④ 중·고등학교	3	2
9.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나요?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년 이상	1	4
10.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1
11.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더) 활동하고 싶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	1

* * * * *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START~!!

" 나는요... _____학년 _____반 _____번 입니다. "

사교육과 특별활동 중 어떤 음악경험을 하고 있나요(해보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O'표 해주세요.		
① 사교육	⇒	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특별활동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③ 사교육과 특별활동 모두	⇒	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④ 없음	⇒	12번 문항으로 가세요.

★*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보세요 *★

1. 배웠던(배우고 있는) 악기(성악 포함)를 옆 칸에 모두 적어주세요. 한 칸에 하나씩~ (예: 피아노, 플룻, 장구, 가야금, 성악, 리코더, 하모니카, 바이올린 등)				
2 ~ 5번은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오른쪽 빈칸의 해당란에 적어주세요.				
2.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① 초등 입학 전 ② 초등 1-3학년 ③ 초등 4-6학년 ④ 중·고등학교				
3.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나요?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년 이상				
4. 지금도 배우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더) 배우고 싶나요? ① 예 ② 아니오				
특별활동 경험도 있는 학생은 6번으로, 특별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은 12번으로 Go!! Go!!				

★* 특별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보세요 *★

6. 어떤 종류의 특별활동인지 예를 참고하여 옆 칸에 모두 적어주세요. 한 칸에 하나씩~ (예: 합창, 춤창, 사물놀이, 밴드, 오케스트라, 핸드벨 연주, 단소, 바이올린 등)				
7 ~ 11번은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오른쪽 빈칸의 해당란에 적어주세요.				
7. 어디에서 활동하는 특별활동인가요? 보기 중에 없으면 빈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① 학교 내 특별활동 ② 학교 방과후 교실 ③ 종교단체 ④ 그 외(옆란에 자세히)				
8. 언제 처음 활동을 시작했나요? ① 초등 입학 전 ② 초등 1-3학년 ③ 초등 4-6학년 ④ 중·고등학교				
9.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나요?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더) 활동하고 싶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12번으로 Go!! Go!!				

★* 모두 (○,◎)보세요 (사교육과 특별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 포함)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오른쪽에서 찾아 '○'표시 하세요~

12.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음악을 전공한(전공할 계획인) 분이 있나요?	예	아니오
13.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음악교육을 받았거나, 음악활동(성가대, 어머니합창단 등)을 한 분이 있나요?	예	아니오
14. 가족 중에 집에서 노래부르기를 즐기는 분이 있나요?	예	아니오
15. 가족 중에 집에서 악기연주를 하는 분이 있나요?	예	아니오
16. 가정에서 TV나 라디오의 음악프로그램을 즐겨 보나요(듣나요)?	예	아니오
17. 당신이 노래를 하거나, 악기연주나, 음악감상 시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거나 격려해 주시나요?	예	아니오
18.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CD, 테이프, 레코드판(대중가요 제외)의 수는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10개 이상	10개 미만
19.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악관련서적(악보, 음악사전, 음악전문잡지 등)의 수는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5권 이상	5권 미만
20. 다음 중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에 모두 '○'표시 하세요.(해당되는 악기가 없다면 괄호안에 모두 적어주세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하모니카, 기타아, 피리, 리코더, 장구, 가야금, 풍파리, 단소, 그 외()		